

**삼성항공, 쌍발헬기 공동 생산
6천억달러 투자, 97년까지 개발**

삼성항공은 美 벨(Bell)사와 공동으로 쌍발경헬기를 개발, 세계시장에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Bell사와 Bell427 8인승 쌍발경헬기를 오는 '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천2백여대를 생산, 삼성-Bell의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직접 판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백여억 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아울러 동사는 기존 사천공장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활용하고, 국내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독자설계, 개발, 조립, 인증 등 헬기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습득한다는 방침이다.

동사는 이미 공동개발 첫 단계인 설계작업 등에 직접 투입할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설계, 제작, 조립 등 전공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게될 NLT은 민수용 8인승급규모의 헬기이며 최대순항속도 133KTS(246km/h), 항속거리 340NM(630km), 탑재중량 2,670lb(1,214kg)으로 약 3억불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약 30억불의 매출(이중 삼성항공은 17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3월 7일부터 이틀간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동사는 기존의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국내업체로 위험분담방식(Risk-Sharing)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Bell사로부터 이전될 헬기개발 제조 기술과 생산물량을 국내업체와 나누어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항공기 연료탱크 개발
대우중공업 복합 소재로**

대우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복합재 연료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대우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994년 3월부터 2년간 2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기존의 금속재 탱크에 비해 20% 이상 무게를 경감한 복합재 연료탱크를 개발했다고 3월1일 발표했다.

탄소복합재와 세라믹 복합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연료탱크는 전자제품 단락현상 및 연료 증기 점화에 따른 내부폭발 등 시험을 거친 결과 금속재 연료탱크보다 월등한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
항공기부품연구센터 설립**

경상대학교는 3월18일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소장 이진명 기계공학과 교수)를 설립하였다.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역협력 연구센터(RRC)로 지정된 동 연구센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7억원 등 약 1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항공기용 부품의 설계·제조·생산·소재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지역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고급인력을 양성, 제공하게 된다.

동 센터는 진사공업단지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독점 혹은 비독점으로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부품산업의 기술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



경상대학교 항공기 부품기술 연구센터 개소식

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에 항공박물관 건립

삼성항공은 경남 사천에 박물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약 5만평 규모 부지의 항공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AEROSPIA 항공박물관’으로 명명된 동 박물관은 항공역사관, 항공원리관, 항공기술관, 항공산업관, 625기념관의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실물, 엔진을 비롯하여 모형, 사진, 소형풍동, 시뮬레이터 등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다. 동사는 올해 우선 여의도 안보전시장의 전시품을 이전하여 625 기념관을 설립하며 2000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동사는 항공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항공기 지식보급 및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민안보교육과 첨단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교육과정 졸업생 배출
대우중공업 헬기 설계학교**

대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헬리콥터 설계회사인 MIL사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 헬기 설계학교를 설립한 후 10주 과정의 헬기 설계 기본교육을 시작하여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에는 헬리콥터 설계경험이 많은 전문가 20여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헬기 설계교육을 받고 3주간 MIL사의 헬기 시험공장을 견학하여 헬기 부품의 시험과정과 설계개념을 습득했다.

대우중공업은 국내 연구원들을 지속적으로 동 헬기 설계학교에 파견하여 설계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1단계 교육을 받은 연구원을 대상으로 세부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헬리콥터 설계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년간 여객기
1만5천9백대 판매
미 보잉사 전망**

보잉사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미화 1조1천억 달러 상당의 각종 여객기 1만5천9백대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타임스지에 따르면 보잉사는 이날 새로 펴낸 “향후 20년간 항공업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공기 제조업체가 지난 35년부터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잉사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이날 ‘아메리칸 인터내셔널그룹’ 산하 항공기 리스 업체인 ‘인터내셔널 리스 금융(ILFC)’사로부터 28억달러 어치의 중형 여객기 보잉 777기 18대를 수주 받은 후 나왔다.

ILFC는 동시에 보잉사의 라이벌

인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A300-200 여객기 등을 포함 모두 38대(30억 달러 규모)를 주문했다.

보잉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항공기 제조업체가 앞으로 20년 동안 수주할 수 있는 항공기 대수가 1만5천4백62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보잉사의 낸시 베셀 영업 담당 부사장은 이와 관련, “항공운송 증가와 항공사의 지속적인 수익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여객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항공기 제조업체가 이제 그 동안의 침체 주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및 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지난해 항공사 등에 인도한 여객기 대수가 지난 94년(5백22대)보다 줄어든 4백81대이었지만 95년도에 수주한 여객기 대수는 7백14대로 나타나 전년(3백47대)의 배로 늘어났다고 보잉사는 지적했다.

베셀 부사장은 항공 시장 동향과 관련, “지난 80년대 말의 호황과는 달리 항공사들은 최근 시장 점유율 향상 보다는 이익 추구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공사들의 합리적인 항공기 구매를 예상하며 매출 신장과 비용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AIR, 단일사 통합 움직임

유럽 지역간항공기 제작 컨소시

업인 AIR(Aero International Regional)사가 佛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사와 닷소(Dassault)사의 합병 추진 등 항공기 제작사들의 대형화 추세에 위협을 느끼고 최근 서둘러 단일 회사로 통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R사는 英 아브로(Avro Intl. Aerospace)사와 제트스트림(Jetstream)사, 이탈리아 알레니아(Alenia)사 등 업체들이 판매 및 고객지원 역량 확대를 노리고 올 1월 구성한 다국적 컨소시엄이다.

안토니오 디 블라시 AIR기획본부장은 '조만간 상용 항공기 시장은 에어버스, 보잉, 맥도넬더글라스 등 세계3대 항공기제작사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AIR사도 실질적인 단일 회사로의 통합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R사는 통합후 12년안에 70-120석 규모의 중형항공기 신모델 개발을 마치고 10년내로 항공기를 인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들은 그러나 '단일회사로의 통합 성사 여부는 한국, 중국등이 주도하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AIR사가 합작파트너로 선정될 것인지, 또 AIR사와 에어버스의 일원인 Dassault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잉-에어버스 성장과정 해부
기업총서 출간**

세계 민항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보잉사와 80년대 이후 떠오르는 유럽의 희망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양대 초일류 기업을 심층 해부한 책이 나왔다.

도서출판 길벗에서 도전과 혁신의 세계 일류기업 총서라는 이름으로 IBM, 도요타, 모토로라, 필립스 등 세계적인 기업을 심층 분석한 기업총서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항공기 분야에서 보잉-에어버스사가 7번째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저자인 항공대 허희영 교수는 동서를 통해 막대한 개발비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항공기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해 온 보잉사의 고난 극복과정과 유럽의 자존심을 건 에어버스 컨소시엄의 등장배경,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역경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파헤쳤다.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1965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1970년12월 에어버스 계획의 기술, 재정, 관리, 마케팅 등을 관리할 조합을 세우기까지 무려 19개월이 걸렸다. 저자는 중형항공기개발사업 같은 국제적 프로젝트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데 에어버스사의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사브(SAAB)사,
포커사 생산라인 인수 추진**

스웨덴의 항공기제작사인 사브(SAAB)사가 중소형항공기인 포커 시리즈 생산라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사브사 대변인은 이날 네덜란드에 있는 포커사에 인수추진팀을 파견해 생산라인의 인수를 전제로 수익성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커사의 지배주주인 네덜란드 정부는 그동안 포커사의 일괄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원매기업을 찾지 못해 파산처리했다. 또 스웨덴의 방산업체인 FFV아에로테크사도 파산한 포커사의 부품생산사업을 인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덜란드정부는 파산한 포커사의 사업부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사업부분을 "포커에 비에이션"이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었다.

**미국 록히드사,
대만과 F-16기 공급계약 완결**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1993년 대만과 체결한 50억달러 규모의 F-16전투기 150대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완결, 대만 정부로부터 11억5천만달러를 받았다고 미 공군이 3월13일 발표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와 같은 계약완결 발표가 중국이 대만해협

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말에 종결되는 미-대 만간 전투기 공급계약은 대만이 F-16A 전투기 120대를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핵심 제작기술 이전을 위해 양국이 개량형 모델인 30대를 공동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록히드마틴사에 주문한 F-16 전투기 중 일부를 오는 56월이나 내년 중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EH101헬리콥터

NASA-MD사, X-36 비행시험

美항공우주국(NASA)와 맥도널더글라스(MD)사는 스틸스기능을 가진 꼬리날개 없는 전투기를 28% 축소한 X-36의 비행시험을 실시하였다.

1천7백만달러가 투자된 동 기종은 1,300lb의 무게와 추력벡터링(Thrust Vectoring)이 가능한 700lbf의 추력을 가진 윌리엄스(Williams)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다. 전장은 19ft이고 날개 길이는 12 ft이다.

동 시험비행에서 피치(Pitch)와 요(yaw)에서의 공기역학적인 불안정이 F/A-18보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英 롤스로이스, GE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엔진 개발

영국의 대형 항공기 엔진 메이커

인 롤스로이스(Rolls Royce)사는 미국의 대형 전기/엔진 메이커인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협력하여 미국이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 생산한다.

군용기 엔진분야에서 양사가 본격적인 공동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의 제휴를 계기로 美 폴렛 앤드 휘트니(P&W)를 비롯한 경쟁 각사간의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美 정부는 국방성의 첨단공격기 술개발(JAST)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다음세기에 대비한 신형 전투기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의 제휴에서는 이 전투기에 채용되는 엔진을 생산할 예정인데, 롤스로이스가 작년에 약 5억달러에 매수한 美 앨리슨(Allison)사를 포함하여 3사가 개발을 담당한다.

EH101 롤아웃

GKN Westland사는 지난 3월 6일, EH101 Merlin 헬기 양산기를 공개했다.

영국해군은 대잠전투력을 가진 동 헬기 44대를 인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에 인도되는 기종은 RN01형으로 불리고 있으나, 대잠전투력은 없고 다음 인도되는 RN02형에 채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인도되는 헬기는 '98년부터 전투능력에 대한 성능확인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탈리아 해군도 16대의 동 헬기의 구매를 검토중에 있는데, 정부에서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